

시적 감정의 분압과 확산의 신경생리학 -조지훈의 시 「密林」을 중심으로

박인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The Neurophysiology of Poetic Feelings' Partial Pressure and Diffusion -Focusing on Cho Ji-Hoon's Poem *Dense Forest*

Park In-Kwa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문학치료의 입장에서 조지훈의 시에 나타나는 전이적 작용을 통해 부호화되는 치유의 구조를 밝혀 문학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감정의 코드가 신경생리학적으로 시냅스 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활성화 되는지에 대한 탐색으로 진행되었다. 조지훈의 시에 전개되는 감정 코드들의 변이는 문학치료의 부호화와 맞닿아 있다. 시적 진술을 통해 배출하는 감정은 새로운 감정의 전이를 불러 일으켜 치유의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조지훈의 시는 여러 시적 전이의 부유물들을 통해 감정을 융합한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치유의 숲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치유의 콘텐츠는 전이의 구조에 의해 논의되는데 그 구조들은 모두 치유의 콘텐츠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하강과 상승의 작용에 의한 한의 서정과 일새들로 우거지는 초록의 미학이 그 주를 이룬다. 앞으로 조지훈의 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친자연적이며 문학치유적인 그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조지훈, 문학치료, 감정의 배출, 융합, 신경생리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structure of healing coded through transcriptional activity in the poem of Cho Ji-Hoon in the aspect of literary therapy. In particular, the search for how the codes of emotion are activated through neurophysiologic synapse. The variation of emotional codes developed in Cho Ji-Hoon's poem is in line with the encoding of literary therapy. Emotions emanating from poetic statements stimulate the transition of new emotions and activate emotions of healing. Cho Ji-Hoon's poem fuses emotions through the floods of various poetic transitions. It is then forming an overall healing forest. The healing content is discussed by the structure of transition, and all the structures are linked to the contents of healing. It is a greater part of sad lyricism by the action of descent and ascension, and green aesthetics of the leaves. In the future, if Cho Ji-Hoon's research on poetry is activated, we will be able to meet genuine stories about his natural and literary healing life.

Key Words : Cho Ji-Hoon, Literary therapy, emission of emotions, fusion, neurophysiology

1. 서론

조지훈(1920-1968)은 박두진, 박목월과 함께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에게 자연과 삶에 대한 특별

한 치유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의 시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조지훈의 시에 나타나는 문학치료학적 치유의 구조에 대

*Corresponding Author : Park In-Kwa(born59@hanmail.net)

Received April 2,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7, 2018
Published June 28, 2018

한 것이다. 이 치유의 구조를 밝혀 문학치료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연을 향유한 청록과 시인의 한 사람으로써의 시의 숲에 그물망처럼 엮여진 자연치유적인 논의를 위해 그의 시 「密林」을 선택했다. 「密林」은 시적 자가 자연과 융합된 한의 정서를 치유의 언어로 표출하고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훈의 문장에는 어떤 치유의 코드가 얹혀 있기에 많은 독자들이 그의 시의 숲으로 이끌려 들어가 슬픔 혹은 한이 기쁨과 행복의 감정으로 치유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조지훈의 “치유”에 대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 몇 편의 논문을 찾아보았다. 물론 적극적인 문학치료학적 논의는 아니지만 이들의 논의는 치유의 관점에 관련되어 있다. 김종훈(2013)은 “「승무」의 판본 비교와 조지훈의 미적 지향점”에서 “조지훈의 경우 그것이 전통적인 제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시로 나타난 것이다.”, “승무는 지상에 얽매인 운명이 자신의 운명을 초극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지상의 것이 천상의 것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며 조지훈의 치유적 서사를 서술하고 있다. 손민달(2013)은 “힐링(Healing) 관점에서 본 『청록집』의 의미”에서 “조지훈의 시에서 발현된 힐링 요소는 그가 표현하고 있는 전통에 대한 천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성천(2012)은 “『청록집』에 나타난 현실 수용 양상과 전통의 문제”에서 “『청록집』에 그려진 감각적 자연의 세계는 ‘전통’이라는 삶의 양식을 자연적 세계로 동화시키면서 (...) 이러한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김종훈, 손민달, 이성천 등은 전통에서 치유의 서사를 찾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치유적 논의는 본 논의의 “3.3. 恨의 구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지훈 시인의 전통적인 관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순수 자연에 대한 그의 시적 상상력과 정신의 세계가 자유롭게 발산된 작품으로써의 치유의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지훈의 시 「密林」을 통해 순수 자연에 대한 그의 감성 세계를 살펴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전이되는 치유의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지훈의 작품 「密林」에 나타나는 전이의 구조와 함께 Emotion Codon에 나타나는 감정 코드들의 “부호화”[1-3,5]에 대한 도식을 통해 치유의 코드를 탐색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감정의 부호화에 대한 그

동안의 꾸준한 연구는, 핀란드의 알토대학교의 연구[31], 경희대학교 채윤병 교수팀의 연구[32], 여러 단체들의 합작 연구[33] 등의 감정 관련 연구들에 의해,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본 연구자의 “논문들”[6-30]의 연장선상에 있다.

2. 분압에 의한 치유의 콘텐츠

우리의 우주는 끊임없이 응축과 확장, 혹은 분압과 확산을 계속하고 있다.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세포의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세포의 생리적 작용에 대해서 Fig. 1(민혜선 · 장경자 · 권오란 · 이선영 · 이흥미 · 김현아 공저, *Human physiology*, 2011: 39)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인체의 모든 생리적인 작용은 분자 혹은 원자의 수준에서 전하를 띤 이온들의 결합과 분리, 분압과 확산에 의한 것, 즉 전하를 띤 이온들의 부호화에 의한 것이다. 이는 감정 코드들의 부호화와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것이 전기적 작용을 띤 이온들의 결합, 분리 및 분압과 확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혹은 감정이 전기를 띤 이온들의 불꽃 튀는 작용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동의 성격을 띤 어떤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될 수 없다. 감정은 움직이는 전하를 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고 전이, 혹은 확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서술하게 되는 치유라는 언어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임을 전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 분압과 확산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 부호화된다는 것, 확산된다는 것 등이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부호화된다는 것이며,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한다는 것도 부호화된다는 것이며, 확산된다는 것 또한 부호화된다는 것이다.

Fig. 1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a) 용질의 확산: 두 구획의 농도차가 있으며 두 구획 사이의 막이 용질에 투과성이 있을 때 농도가 높은 왼쪽 구획으로부터 농도가 낮은 오른쪽 구획으로 용질이 이동되며, 세포막 양쪽의 농도가 동일해지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b) 확산에 의한 가스 교환: 산소 분압이 높은 세포 외부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세포 안으로 산소가 확산되며,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세포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확산된다.”(민혜선·장경자·권오란·이선영·이흥미·김현아 공저, *Human physiology*, 2011: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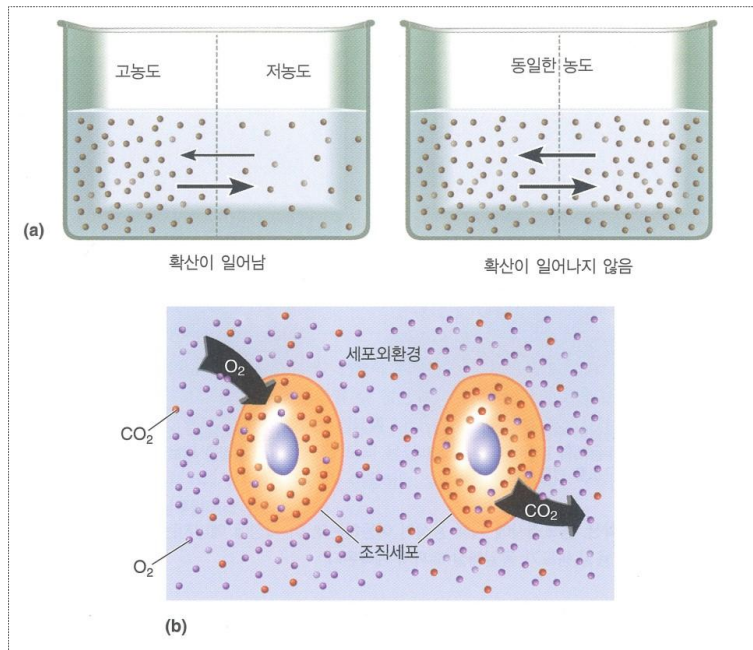


Fig. 1. Exchange of oxygen and carbon dioxide by partial pressure

이러한 사실들을 문학적 장치로 추동되는 감정의 콘텐츠와 연결하여 보려고 한다. 다음은 1996년에 파주의 나남에서 발간된 『趙芝薰 전집 1 詩』의 380-381에 나오는 「密林」[4]이다. 이는 치유의 콘텐츠로써 작동됨을 알게 될 것이다.

1

참나무 떡갈나무 잣솔나무 다우히 우거지고 떨어진 잎새 폭폭 발목에 문히도록 구수한 냄새. 눈 들어도 해 보이지 않고 피꼬리 빠꾸기 콩새 죄꼬만 오맛 산새 우는 사이 푸른 하늘이 구슬알처럼 구르고 가만히 들기에도 절로 서러워지는 아리랑調 휘돌아가는 산골에 흰 구름이 바람 따라 연신 소나무 가지로 떨어진다.

2

나무와 나무가지로 머루 다래 넝쿨 얽히고 칠팀불 탕탕이 기어나갔는데 진달래 봉오리 반만 열렸고 푸른 남쪽 하늘 못 본 진달래 연분홍이 사뭇 새하야이. 짙은 나무 등걸 밑 다람쥐 달아나고 나는 松栢를 하나 따 들었다.

3

도라지 삼주꽃 핀 양지쪽을 돌면 落落長松이 있고 어둡기사 해도 어둡이야 온통 푸른 하늘빛 어둠. 산골 물소리 새뜻하기 이빨로부터 온몸이 스리다. 마른 목 추기고 곁해 발도 씻고 다시 일어서면 푸른 어둠 속에 내가 난 줄도 몰라 새우는 소리 잎이 피는 소리. 푸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絶頂에 올라서면 東海바다가 漉— 하고 부서진다.

4

새, 꽃, 풀, 나무가 七月달 별처럼 어울렸는데 내가 알던 새 이름 풀 이름이야 열 손도 못 다 꼽고 없어진다.香氣는 麝香내 못지 않으리. 지팡이 멈추고 네 활개 버리면 진정 나도 한그루 나무로 잎새 우거질 듯 싶은지고.

-조지훈의 시 「密林」 전문[4]

조지훈 시 「密林」은 전이적 시스템의 협동 작업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치유의 콘텐츠를 형성한다. 이제 이 시의 전이의 구조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3. 「密林」에 전이되는 치유의 체계

3.1 斷章 구조

「密林」은 의미의 점층적 충진을 위한 斷章 구조로 이루어져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1 → 2 → 3 → 4”의 형식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 시는 悲調斷章

의 13번째 시로 편집되었다. 悲調斷章이란 전제부터 이 시는 슬픔이 모티브가 되어있다. 영롱한 슬픔의 정서가 꺾어진 구슬처럼 단정하게 연결되어 자연을 끌어들이고 시적 자아가 그 안에 침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단장 구조에서는 시의 의미와 감정들이 “1 → 2 → 3 → 4 → 1”의 형식으로 전이되는데 1의 “잎새”와 4의 “잎새”는 다르다. 즉 1의 “잎새”는 “떨어진 잎새”이고 4의 “잎새”는 우거지는 잎새이다. 단장 구조에서 의미와 감정들의 분압이 높아져서 순환되게 될 때, 인체에서는 이들의 감정 코드들을 신경시스템으로 부호화하는 것이다. “떨어진 잎새”에서 “우거지는 잎새”로 이동된다는 것은 “떨어진 잎새”들에 대한 감정의 분압이 높아져 “우거지는 잎새” 쪽의 감정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잎새의 우거짐에 의한 산소의 확산을 豫期하는 것이며 치유의 과정을 豫期하는 것이다.

3.2 色의 구조

「密林」의 색들의 대비는 산뜻하다. 이 산뜻한 색들은 “1 잎새 / 푸른 하늘 → 2 푸른 남쪽 하늘 / 연분홍 / 새하얀아이 → 3 푸른 하늘빛 어둠 → 푸른 어둠 → 푸른 나무 / 4 잎새”의 구조로 투입되어 있다. 잎새의 초록색과 “푸른 하늘”, “푸른 남쪽 하늘”과 “연분홍”, “푸른 남쪽 하늘”과 “새하얀아이”, “푸른 하늘빛 어둠”과 “푸른 어둠”, “푸른 어둠”과 “잎새”로 구조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색은 “잎새 → 푸른 하늘 → 연분홍 → 새하얀아이 → 푸른 어둠 → 잎새”의 틀로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잎새”와 “잎새”를 연결하면 “잎새+잎새=잎새”가 되어 전이의 틀을 원형(圓形)으로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색 바랜 “잎새”의 이미지는 초록의 “잎새”의 이미지로 변이된다. 이 色의 구조에서 색 바랜 “잎새”가 초록의 “잎새”라는 이미지로의 전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숲 생태계가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치유의 은유이다. 이러한 색의 구조는 온갖 색들의 향연을 거친 뒤 우거지는 “잎새”를 초록으로 매듭짓는다. 즉 “퇴색된 나뭇잎 색 → 온갖 색으로의 향연 → 초록의 나뭇잎 색”으로 색의 채도가 전이된다.

색의 채도가 “퇴색된 나뭇잎”에서 “초록의 나뭇잎”으로 전이된다는 것은 초록의 분압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이는 초록의 잎들이 확산시키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지훈의 풍경은 시적 전이의 부유물들을 통해 감정을 융합한다.

3.3 恨의 구조

이 시가 속한 悲調斷章은 조지훈의 전통적인 내적 산물로서 한민족의 서정에 기인한다. 한의 서정으로 읊고 있는 「密林」의 시어들은 “떨어진 잎새”, “오랫 산새 우는”, “절로 서러워지는 아리랑調”, “온몸이 스리다”, “새우는 소리”, “푸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東海바다가 쇠— 하고 부서진다”, “한그루 나무로 잎새 우거질듯” 등이다. 「密林」에 투사된 시적 내면이 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잎새들이 단장으로 떨어지고 오랫동안 산새도 단장으로 울고 아리랑調 또한 단장으로 삶의 고개를 넘는다. 온몸이 스리게 하는 산골물도 단장으로 내린다. 그리고 새우는 소리, 푸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또한 단장으로 흔들리며 東海바다가 단장으로 강력하게 “쇠—” 하고 부서진다. 결국 悲調斷章으로 우거지는 “잎새”들을 띄워 올린다. 조지훈의 시는 피리 구멍에서 내는 한의 멜로디와 같다. 그의 시 <피리를 불면>에서도 “鶴”이 울고 “꽃피 꽃바람”이 “눈물”에 어리고 “짜리나무 새순 뜯는 / 사슴도 운다”고 한의 구조를 단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恨의 구조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슬픈 음표의 시어들이 상승구조를 향하여 전이된다. 悲調斷章의 슬픔의 음표들은 “절로 서러워지는 아리랑調”다. “푸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와 “東海바다가 쇠— 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새들이 우거지는 소리들을 구성한다.

이 시의 시적 음표들은 적극적으로 하강과 상승의 작용을 수행한다. “잎새 폭폭 발목에 묻히도록” →(전이)→ “구수한 냄새”, “~오랫 산새 우는” →(전이)→ “푸른 하늘이 구슬알처럼 구르고”, “아리랑調 휘돌아가는” →(전이)→ “흰구름이 ~ 떨어진다.”, “머루 다래 넝쿨 얽히고” →(전이)→ “침뎀볼 탕탕이 기어나갔는데”, “진달래 봉오리 반만 열렸고” →(전이)→ “진달래 연분홍이 사뭇 새하얀아이”, “새우는 소리” →(전이)→ “잎이 피는 소리”, “푸른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전이)→ “東海바다가” 부서지는 소리, “香氣” →(전이)→ “麝香내”, “네 활개 버리면” →(전이)→ “잎새 우거질듯” 등이다. 앞의 시어가 뒤의 시어의 행위를 유발한다. 이것은 문학치료적 효과를 유도하는 틀로써 앞쪽 시어는 뒤쪽 시어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앞의 시어가 응집되다 배출되면 뒤의 시어가 들어서게 되는 분압과 확산의 메커니즘이 발산되는 것이다.

발목에 묻히는 것은 구수한 냄새를 유발하고 오맛 산 새가 울면 흰구름이 떨어지고 머루 다래의 냉쿨이 얽히면 칙냉쿨이 탕탱해지고 진달래 봉오리가 반만 열렸기 때문에 연분홍이 새하얗고 새 우는 소리가 잎을 티우고 푸른 나무가 흔들리기 때문에 東海바다가 부서진다. 그리고 네 활개를 버리기 때문에 잎새가 우거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행로는 치유의 구조를 형성하며 많은 길손들에게 상큼한 휴식을 제공하게 된다. 조지훈의, ‘네 활개’를 버리기 때문에 잎새가 우거진다는 시적 진술은 인체에서 이산화탄소를 버림으로써 상큼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리는 세포의 생리적 작용인 분압과 확산과 같은 원리와 등가의 규칙이다.

3.4 물관과 체관의 구조

「密林」의 詩行들은 물관과 체관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조지훈의 「密林」은 물관이 되어 “마른 목 추기고”를 서술하고 체관이 되어 “잎이 피는 소리”와 “잎새 우거질듯 싶은지”를 서술한다.

이 물관과 체관의 구조에서는 좀 더 세밀히 내면화 되는 조지훈의 시적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조지훈의 詩的 전이 구조는 모두 하강과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숲의 물관과 체관의 기능을 함유하고 있다. 하강의 구조는 상승을 위한 에너지의 농축작용이다. 이는 용수철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결국 강력한 탄성력으로 튕겨 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인 “떨어진 잎새”들, “흰구름의 낙하”, “씩은 나무 등걸”, “산골 물” 등이 하강의 이미지로써 에너지를 농축하여 튀어오름으로써 마지막 문장 속의 “잎새”들이 상승하여 우거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강은 농축, 즉 분압이 생성되는 원리이며, 상승은 농축된 에너지들이 숲을 이루기 위해 물관을 따라 올라오고 체관을 따라 잎을 계속 티워 몸을 키우는 확산의 원리이다. 잎이 우거진다는 것은 꽃을 피우는 작업이고 또한 열매를 맺는 작업이다. 그래서 조지훈의 숲은 풍성해지고 치유의 숲이 된다. 이렇게 초록 잎들이 우거진 치유의 숲에서는 밀도가 높은 산소의 분압이 인체의 호흡에 의해 세포질로 투입되는 것이다.

4. 「密林」에 부호화된 Emotion Codon

「密林」의 1에 응집된 대표적인 감정은 슬픔이며 슬픔의 하강을 노래한다. 슬픔을 “U”로 표기하기로 한다. 2의

대표적인 감정도 “U”로 표기하고 3의 대표적인 감정은 기쁨이라 하고 “J”로, 4의 대표적인 감정은 즐거움 혹은 행복의 감정이라 하고 “L”로 Emotion Codon에 표기하기로 한다. 그러면 「密林」의 감정 코드들은 “U, U, J, L”로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감상의 횟수를 높여 이 감정 코드들이 3번 부호화되었다고 한다면 “U, U, J, L, U, U, J, L, U, U, J, L”가 된다. 이때 긍정적인 시어들의 상태에 의해 결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면 “UUU”, “UUU”, “JJJ”, “LLL” 등으로 나타난다.

DNA의 유전 암호로 이루어지는 Codon을 참조하면 「密林」에서 나타나는 이 감정 코드들은 코돈이 나타내는 아미노산의 위치에 있다. 즉, “UUU”는 페닐알라닌의 위치, “JJJ”는 글리신의 위치, “LLL”는 프롤린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들 감정 코드들은 페닐알라닌, 글리신, 프롤린의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활성화된 코드들은 분노의 코드 “A”의 조합은 섞여있지 않고 슬픔과 기쁨과 행복의 코드가 조합되어 있다. 분노의 코드 “A”가 없다는 것은 이 시의 추동 원인은 분노나 히스테리도 아니고 응축된 우울증의 증상임을 말해준다. 그 응축된 우울증이 감정 코드들의 분압이 높아지면 배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의 치유의 함의이며, 시적 감정의 분압과 확산의 신경생리학이다.

이 코드들은 표 1과 같이 부호화되어 있다. 이 부호화의 상태에서 감상의 횟수를 더한다면 또 다른 재부호화의 상태로 인체의 치유를 이끌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인체가 생각하고 뜻하는 방향으로 모든 신체적 기능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약효과”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만나지 못할 그리운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만나지 않아야 할 공포적인 장면을 꿈속에서 맞닥뜨린다면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학 작품과 꿈을 생산하는 뇌기능은 인체의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의 문학은 창작자 자신이 원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친자연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코드들로 자신의 심리적 기능과 생체적 기능을 치유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부호화에 대한 방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알토대학교의 연구[31], 경희대학교 채윤병 교수팀의 연구[32], 여러 단체들의 합작 연구[33] 등이 검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Table 1. Emotion-Codon Encoded into 「Dense Forest」

Second base →	U	L	A	J	Second base ←
First base ↓	UUU*2	ULU	UAU	UJU	Third base ↓
U	UUL	ULL	UAL	UJL	U/L/A/S
	UUA	ULA	UAA	UJA	
	UUJ	ULJ	UAJ	UJJ	
L	LUU	LLU	LAU	LJU	U/L/A/S
	LUL	LLL	LAL	LJL	
	LUA	LLA	LAA	LJA	
	LUJ	LLJ	LAJ	LJJ	
A	AUU	ALU	AAU	AJU	U/L/A/S
	AUL	ALL	AAL	AJL	
	AUA	ALA	AAA	AJA	
	AUJ	ALJ	AAJ	AJJ	
J	JUU	JLU	JAU	JJU	U/L/A/S
	JUL	JLL	JAL	JJL	
	JUA	JLA	JAA	JJA	
	JUJ	JLJ	JAJ	JJJ	

These Emotion amino acids express various changes of the Emotion DNA

5. 결론

본 연구는 감정의 코드가 인체생리학적으로 접근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활성화 되고 변이되는지에 대한 탐색으로 진행되었다. 조지훈의 시 「密林」에 전개되는 감정 코드들의 변이는 문학치료의 부호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조지훈이 시적 진술을 통해 배출하는 감정은 새로운 감정의 전이를 불러 일으켜 치유의 감정을 활성화시킨다. 여러 시적 전이의 부유물들을 통해 감정을 융합하여 총체적인 치유의 콘텐츠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치유의 콘텐츠는 전이의 구조로써 논의되는데 그것은 하강과 상승의 작용에 의한 한의 서정과 잎새들로 우거지는 초록의 미학이 그 주를 이룬다.

인체의 모든 생리적인 작용은 분자 혹은 원자의 수준에서 전하를 띤 이온들의 결합과 분리, 분압과 확산에 의한 것, 즉 전하를 띤 이온들의 부호화에 의한 것이다. 이는 감정 코드들의 부호화와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것이 전기적 작용을 띤 이온들의 결합, 분리 및 분압과 확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훈의 시에서 의미와 감정들의 분압이 높아져서 순환되게 될 때, 인체에서는 이들의 감정 코드들을 신경

시스템으로 부호화한다. 시에서의 색 바랜 “잎새”가 초록의 “잎새”라는 이미지로의 전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숲 생태계가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은 치유의 은유이다. 색의 채도가 “퇴색된 나뭇잎”에서 “초록의 나뭇잎”으로 전이된다는 것은 초록의 분압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이는 초록의 잎들이 확산시키는 산소의 분압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지훈의 주실마을의 풍경이 시의 치유적 풍경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DNA의 유전 암호로 이루어지는 Codon을 참조하면 조지훈 시 「密林」에서 나타나는 감정 코드들은 Codon이 나타내는 아미노산의 위치에 있다. 즉, “UUU”는 페닐알라닌의 위치, “JJJ”는 글리신의 위치, “LLL”는 프롤린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들 감정 코드들은 페닐알라닌, 글리신, 프롤린의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활성화된 코드들은 분노의 코드 “A”의 조합은 섞여있지 않고 슬픔과 기쁨과 행복의 코드가 조합되어 있다. 분노의 코드 “A”가 없다는 것은 이 시의 추동 원인은 분노나 히스테리도 아니고 응축된 우울증의 증상임을 말해준다. 그 응축된 우울증이 감정 코드들의 분압이 높아지면 배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시의 치유의 함의이며, 시적 감정의 분압과 확산의 신경생리학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지훈의 시적 감정 코드들이 인체의 유전 코돈인 아미노산의 위치에 있다고 논의하며, 이 감정 코드들로 인해 조지훈의 시가 우울증 등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감정 코드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시적 감정의 부호화에 의한 아미노산의 생리적인 활동이 의학 분야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Baars Bernard J & Gage Nicole M. (2010).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B. G. Kang trans. Seoul : Kyobo Books.
- [2] Bryn Kolb & Whishaw Q Ian. (2012).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 J. J. Kim co-trans. Seoul : Sigma Press.
- [3] Cooper Geoffrey M & Hausman Robert E. (2011).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Seoul : World Science.
- [4] J. H. Cho. (1996). *Cho Ji-Hoon Jeonjib 1 Poetry*. Paju : Nanam.
- [5] H. S. Min, K. J. Chang, O. R. Kwon, S. Y. Lee, H. M. Lee & H. A. Kim. (2011). *Human physiology*. Paju : Yangseowon.
- [6] I. K. Park. (2015).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1)*, 37-64.
- [7] I. K. Park. (2015). A study on Transfer-Litero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Literotherapy, 5(1)*, 85-106.
- [8] I. K. Park. (2015). Structuration of literotherapy transi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1(2)*, 21-36.
- [9] I. K. Park. (2016).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1)*, 13-33.
- [10] I. K. Park. (2016).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 [11] I. K. Park. (2016).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4)*, 31-40.
- [12] I. K. Park. (2016).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 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4(4)*, 45-50.
- [13] I. K. Park. (2017).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1)*, 26-31.
- [14] I. K. Park. (2017).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2)*, 9-18.
- [15] I. K. Park. (2017).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ated Sijo which is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3)*, 7-19.
- [16] I. K. Park. (2017). A Study on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s of Ancient Sijo that Ends without a Predicat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8)*, 225-230.
- [17] I. K. Park. (2017). A Study of the Sijo's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concentrating on the Twelfth Sound Step.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4)*, 403-428.
- [18] I. K. Park. (2017). Therapeutic Functor that calls semantic Argument -Focusing on the compound nouns in Sijo.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3)*, 35-39.
- [19] I. K. Park. (2017). A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 Codes of Sijo Fused by Transfer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167-172.
- [20] I. K. Park. (2017).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Codes Encoded by Auditory Stimuli Transferred from Cho Ji-Hoon's Poem *If I Blow a Flut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5)*, 467-482.
- [21] I. K. Park. (2017). The Semantic Structure of Synaptic Activation, Likened to Cho Ji-Hoon's Poem 'Lin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21-26.
- [22] I. K. Park. (2017). A Study on the Encoding of Literature Therapy in the Third Line of the Poem 'Morning' Written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3(4)*, 123-129.
- [23] I. K. Park. (2017). The Layer of Emotion that Makes up the Poem "Falling Flowers(落花)" by Cho Ji-Ho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4)*, 1-9.
- [24] I. K. Park. (2017). Encoding of sentences appearing in Cho Ji-Hoon's poem "White nigh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5(4)*, 31-37.
- [25] I. K. Park. (2017).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Structures Encoded to Genetic Cipher Location:

Focusing on the Sadness Motif that are Carved on the Cho Ji-Hoon's Poem "Short Melodies of Grass Lea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8(6), 1269-1284.

- [26] I. K. Park. (2018). The Structure of Healing in the Functor and Semantic Arguments Appearing in the Poem "Bellflower Flower" by Cho Ji-H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1), 275-278.
- [27] I. K. Park. (2018). The Argument Structure of Healing Encoded at the Functor Location -Focusing on Cho Ji-Hoon's Poem *Wom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1), 989-998.
- [28] I. K. Park. (2018). The Amplification of the Morse Codes, which Cho Ji-Hoon's Poem *Silent Night 1* Leaves in the Human Bod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6(1), 42-49.
- [29] I. K. Park. (2018). Mechanism of Tension and Condensation from the Others into the Poetic Narrator - Focusing on Han Yong-woon's Poem *I do not Know*.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2), 149-162.
- [30] I. K. Park. (2018). The Sijo Strained by the Preceding Line: Focusing on the Works of Bang-yeon Wa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4(2), 149-153.
- [31] PNAS. (January 14, 2014). *Bodily maps of emotions*. <http://www.pnas.org/content/111/2/646.full.pdf>
- [32] Y. B. Chae. (November 26, 2017). *Changes in body sensation-Results of observations of changes in human emotions*. THE MINJOK MEDICINE NEWS.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6>
- [33] Seoul Newspaper. (November 25, 2017). *What happens in my head when I'm excited about music*. DAUM. <http://v.media.daum.net/v/20171125120103616?rcmd=mn>

박인과(Park In-Kwa)

[정회원]



- 2016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치료학과 (문학치료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박사 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국문학, 문학치료학, 감성과학, 생명공학, 신경생물학, 유전공학, 세포학, 물리학
- E-Mail : born59@hanmail.net